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02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일 뉴욕증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을 내정하는등 외교안보팀 6명의 인선을 발표 하였으나 소비부진에 따른 경기후퇴 우려의 증폭과 지난주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인하여 폭락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679.95p(7.70%) 떨어진 8,149.09에 장을 마감. 지난주 증시 급등을 이끌었던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폭락.

씨티그룹과 JP 모건이 각각 22%, 17% 하락을 기록.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1% 추락. 또한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 13%,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10%, GE가 9% 떨어지며 경기후퇴를 재차 확인.

이날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원유 생산을 감산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며 유가 관련주 급락.

S&P500 지수는 80.03p(8.93%) 내린 816.21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7.50p(8.95%) 떨어진 1,398.07을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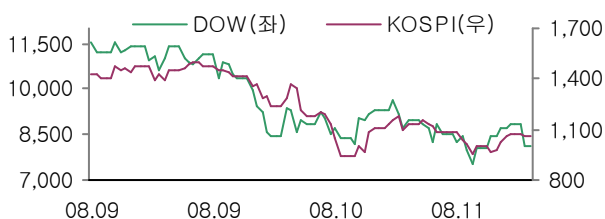
이번 '블랙 프라이데이' 기간 중 소비자 지출은 작년대비 7.2%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나 연말 쇼핑기간 중 소비자들의 추가 구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.

또한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가 발표한 제조업지수는 36.2를 나타내며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증시는 낙폭을 확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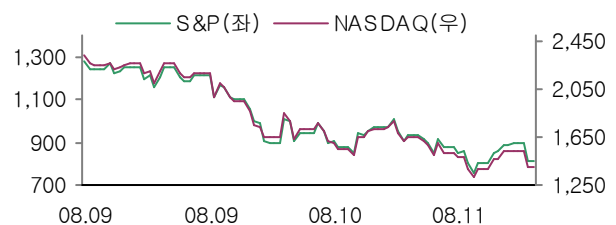
10월 건설지출은 전월대비 1.2% 떨어진 1조730억달러로 집계되어 주택 시장의 침체도 재확인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149.09	-7.70	-3.49	-1.50	-12.61	-29.41	-39.06
S&P(좌)	816.21	-8.93	-4.18	-4.06	-15.75	-36.37	-44.89
NASDAQ(우)	1,398.07	-8.95	-5.02	-5.67	-18.76	-40.95	-47.46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